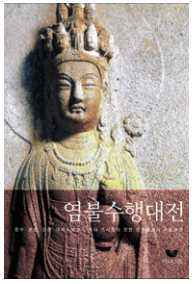


# 부처님만 열심히 불리도 부처님 공덕이 나의 공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비율과소통 펴냄  
3만8천원

“입으로 늘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들으시며 뚝으로 늘 부처님께 예경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보시며 마음으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곧바로 아시니 중생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부처님도 그리하십니다.”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말씀들을 모았다. ‘염불’은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 중의 하나로, 글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念)하는 것이다. 염불에는 이법(理法)으로서의 부처님을 염하는 법신의 염불과 부처님의 공덕이나 부처님의 상(相)을 마음에 떠올려서 보는 관념의 염불과 부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칭명(稱名)의 염불이 있다. 염불의 이유는 염불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되어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대승에서는 삼매에 들어가서 염불하는 염불삼매의 법을 설하여, 이것에 의해서 죄를 멸하고 정(定)중에 부처를 본다고 하고, 또 정도에 태어나고자 원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정도에 태어난다고 한다. 책은 이 중에서 지명염불(칭명염불)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향하고 있다.

염불이란 원래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말하면 부처님의 이름, 모습, 지혜, 공덕 등을 생각하여 잊지 않는 것을 염불이라고 한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불

###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말씀

부처님 부르는 것은 성스러운 일

“아미타불...” 속에 무량공덕 있어

다. 한편 칭명이란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염불과 칭명은 원래 다른 개념이었는데, 아미타불의 후신이라 불리는 선도 화상이 염불과 칭명을 동일시한 이래로 같은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칭명이 염불의 전부는 아니다.

그럼 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고 읊었습니다.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물은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 본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등은 큰 의미를 가진 성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며 책은 칭명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불광사 광덕 스님은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성 의 표현을 넘어 말이 담긴 의미를 실현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목의 성대가 진동해서 일정한 법칙에 의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 깊이 깃든 진리의 파동입니다. 말은 말로 끝나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며 생각은 마음의 진동이고, 마음에는 일체성취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고 말하면서, “말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진리공덕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도 할 것입니다. 말은 믿음의 표현이며 깊은 마음의 형성으로서 말하는 말에는 그 내용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리를 긍정하는 말, 자성공덕에 포함되는 말은 진리자체의 발동으로서 그만큼 구체적 실행력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 실상을 긍정하는 말은 진리의 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 합시다.”고 말한다.

아울러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 ‘잘 될거야’와 같이 좋은 말을 만 번 이상 하면, 그 말은 진언(眞言)이 되어 알 수 없는 큰 힘이 생긴다고 한다. 하물며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 걸 같이 찬탄하는 이름이고, 또 수많은 성현들과 선지식들께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친히 부르며 사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생들에게도 아미타불을 부를 것을 간절히 권했고, 또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는 수천 년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경심을 가지고 우리라며 불렀던 이름이다. 그러기에 아미타불은 사람의 이름과는 달리 무량한 공덕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고, 염불의 의미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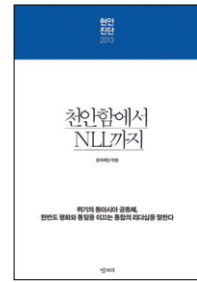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염불’이다. 극락왕생의 정인(正因)이자 정행(正行)이라 할 수 있다. 책의 골간이다. 2편은 극락왕생의 조인(助因)이자 조행(徃行)이라 할 수 있는 ‘육식, 이 말이나 어리석은 짓인가/ 방생은 최고의 선법/ 사음(邪淫)만은 하지말자’이다. 비유하자면 염불이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면 조인인 육식금지과 방생과 사음경계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육식문화의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알리고, 더 나아가 육식이 얼마나 큰 악보를 만들어 내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날이 갈수록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사음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알리기 위한 경계의 글들을 모았다. 저자 주세규는 본 책 십만 권을 범공양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박재원 기자 waniholl@hyunbul.com

## 한반도의 현안 그것이 궁금하다

현안진단 2013  
-천안함에서 NLL까지

평화재단 엮음 | 평화리 펴냄 | 2만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갖추어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고 평화, 민주, 복지의 통일한국을 구현해 나가는데 전략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은 사안에 숨은 알맹이를 찾아내는 분별력과 식견을 갖추어 밀려오는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분명한 잣대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책은 북한 핵실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외교전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평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논평을 묶은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제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온 <현안진단 2013>는 2009년 5월에 발행된 뉴스레터 1호부터 2012년 10월의 60호까지를 엮은 것이다.

2013년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막혔던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남북과의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권 출범 직전, 때를 맞추듯 진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진단 2013>은 이러한 현상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균형 있는 진단, 대안 마련을 위한 접근 방법이 여타의 제안서와는 다르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통일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생생한 현장보고서’다. 이는 앞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통일, 외교, 안보의 복합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초에 선 한국사회’, 2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 3장 ‘벼랑 끝 반란정 돌아오라’, 4장 ‘동북아시아 전환기의 외교’다. 심각한 제목들이다. ‘돌아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기초에 선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하냐’, ‘한미정상회담 이후한반도 정세 전망’, ‘천안함 사건 100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60개의 소제목들은 심각한 제목들을 구체화시킨다. 한반도를 둘러싼 심각한 문제들이 이토록 많았던가. 관광객의 안내책처럼 한반도 현안에 대한 안내서이다.

“동북아 새 판 짜기가 시작되고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적인 시각과 실천의지를 기대해본다.” 책은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당부도 마무리 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 ~ 1/1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자공헌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개정증보판)	김재용	웅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생연파커스
5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6	지금 당장	도법	다산초당
7	봄바람에 피지 않는 꽃이 있으랴	지유 외	불광출판사
8	공부하다 죽어라	정찬주	열림원
9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경림사
10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 불서출판 운우사 제공

www.unjusa.com  
운우사 (02)3672-7181

## 성엄 선사님이 말하는 선(禪)이란...

### 부처마음연기

성엄선사 말씀 | 대성 옮김 | 탐구사 펴냄 | 1만5천원



할 수 없다. 이는 선이 지식, 상징 그리고 모든 언어 장치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책은 중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렸던 대만의 상업선사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일주일 단위의 집중적 선 수행인 ‘선칠(禪七)’을 여러 차례 이끌면서 했던 수행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은 것이다. 책의 후반부는 불교의 기본 교법인 사성제와 육바라밀에 대한 스님의 강설과 심우도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담고 있다.

“여러분은 선을 공(空)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 의미의 공은 아니다. 또 그것을 ‘유(有)’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그것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이 있다’는 상식적 의미의 ‘유’는 아니다. 그것은 세계, 모습, 소리, 냄새, 맛, 감촉, 형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 인상이라는 허구들을 초월해 있는 ‘유’이다. 그럼에도 이 선은 결코 우리의 일상세계와 별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안에, 도처에, 언제나 거주하고 있다.” 이 선은 우리의 본래적 자아에 대한 다름 아니지만, 우리의 자아중심적 망상으로 인해 기억할 수 없는 옛부터 그것이 시야에서 가려져 왔다. 선 불교에서는 이 자아를 ‘자성’, ‘불성’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이 자아를 드러내고 체험하는 길이 선의 길이며, 그 수행방법들이다. 선은 그 자체 묘사를 넘어서 있지만, 수행자들 자신이 선문(禪門)에 들어설 때까지는 언어를 하나의 교과서로 사용한다. 이것이 이 책의 이유다.

선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로 알려져 있지만, 또한 상당히 어려운 길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승들은 여름과 겨울 3개월씩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반인들은 이

런 수행을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불교에서는 1주일 단위의 집중수행인 ‘선칠’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어, 일반 재가자들도 비교적 쉽게 선 수행을 체험하고 깨달음에 도전할 수 있다.

책은 성엄 선사의 간략한 자전(自傳)으로 시작하여, 선칠에 관한 장문(詩稿)인 ‘관심명(觀心銘)’과 ‘묵조명(默照銘)’ 해설에서는 간결한 언어로 선 수행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며, 특히 묵조선의 경지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한편, 견성과 관련하여 무아와 진아의 개념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데, 이 진정한 자아는 바로 우리의 ‘자성(부처 마음)’이다. 성엄 스님은 이 자성이 무아이며, 진정한 무아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일 뿐, 깊은 깨달음 속에는 ‘깨달은 자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의 기초 개념에서부터 가장 철저한 깨달음의 단계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접목할 수 있는 선 수행의 지침서다.

박재원 기자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히otel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성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향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와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소량씩 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정통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북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플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민 810-02-157670 (박혜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기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스님은 전국의 불자들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신창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창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